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7. 1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가상자산 악용 시 압수 法案 추진
 - 7.5 외신은 英 상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당국 권한을 확대하는 '경제범죄·기업투명성법안'을 추진 중이며, 이는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도
- 러 보안당국, 사할린주 에너지시설 테러 계획한 남성 체포
 - 7.5 언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(FSB)이 사할린주 소재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준비한 혐의로 新나치주의 지지자 남성을 체포하고 다수의 테러·극단주의 관련 콘텐츠 등을 압수했다고 보도
 - ※ FSB는 同人에 대해 테러 공격 준비 및 반역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착수

미주

- 美,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中 총기난사로 전국에서 20명 사망
 - 7.6 언론은 지난 1~5일 美 전역에서 일어난 22건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발생한 사망자가 20명, 부상자는 126명으로 집계되었으며, 필라델피아에서 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쳐 가장 피해가 컸다고 보도

아·태평양

- 탈레반, 노획한 미국産 무기 전 세계 테러조직에 공급
 - 7.5 언론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두고 간 총 9조 원 이상 가치의 무기들이 탈레반의 밀수 경로를 통해 전 세계 테러조직에 공급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테러 공격의 치명률이 급증했다고 보도
 - ※ '22년 테러 공격당 사망자는 1.7명으로 전년 1.3명 대비 30% 증가

○ 탈레반, '스레드'보다 '트위터'가 우수하다고 평가

- 7.11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고위 인사 「아나스 하카니」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·신뢰성 측면에서 트위터가 스레드보다 중요한 장점이 있으며, 메타(META)는 편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
 - ※ 트위터가 탈레반을 비롯해 누구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최근 출시된 스레드는 탈레반의 사용을 차단

중 동

○ 美, 시리아에서 ISIS 지도자 드론 공격으로 사살

- 7.9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시리아 동부 일대에서 실시된 'MQ-9 리퍼' 드론 공격으로 ISIS 지도자 중 1명인 「우사마 알 무하지르」를 사살했으며, 앞으로도 이라크·시리아와의 협력하에 ISIS를 타도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
 - ※ 한편 이번 작전으로 주민 1명이 부상당했으나 민간인 사망자는 없다고 부언

○ 이스라엘, 시민들에 대한 총기 관련 규제 완화

- 7.8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최근 무장한 시민들이 용의자를 제압한 사례와 같이,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테러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시 총기를 즉시 돌려주는 등 총기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
 - ※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총기 사용시 경찰이 총기 압수 후 조사 등 절차 진행

아프리카

○ 러시아 바그너 그룹 아프리카 철수, ISIS 세력확장 우려

- 7.10 언론은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내 치안을 담당하던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철수에 따라 ISIS 등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과 반군 등이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
 - ※ 바그너그룹은 지난 10년간 리비아, 말리,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 13곳에 '안보서비스'를 제공하고 국가내정 간섭 등의 영향력을 행사

인도 뭄바이市 연쇄 폭탄테러

- '11.7.13 인도 경제수도 뭄바이市에서 3차례에 걸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하고 127명 부상
 - 테러는 18시 54분 남부 '자베리 바자르' 시장을 시작으로 1분 뒤 오페라 하우스, 이어서 19시 5분에는 다다르 구역에서 발생
 - 인도 내무부는 현장에서 초산 암모니아와 연료용 기름이 발견된 점에 비춰 세 곳 모두 IED에 의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
- 同 테러에 대해 파키스탄은 즉각 비난 성명을 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*하였으며, 국제사회도 연이어 비난 성명 발표
 - * 이는 과거 '08.11월 뭄바이 테러가 파키스탄 內 테러단체 LeT(라쉬카르 에 타이바)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
-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도 정보당국은 인도 內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M(인도 무자헤딘)의 소행으로 추정
 - '11.2월 IM 조직원 간 통화 중 7월 테러 공격을 언급한 점과, 사건 전날 조직원 2명이 뭄바이 인근 마하라슈트라州에서 체포된 점에 주목
 - 조직원 체포에 대한 보복 차원과 함께, 퇴근 시간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테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분석

< 인도 무자헤딘(IM, Indian Mujahedeen) >

- (목표) 인도 세속정권 축출 및 南아시아 內 이슬람 국가 건설
- (핵심인물) 리야즈 바트칼(수괴)
- (활동지역)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네팔 등 南아시아
- (특징)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조직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 미상, 주로 민간 시설 폭탄테러 및 무슬림 대상 지하드 선동 자행
- (주요테러) '08.7 인도 구자라트주 병원·상점 연쇄 폭탄테러(256명 사상)
'10.2 마하라슈트라주 소재 독일 베이커리 폭탄테러(외국인 등 77명 사상)
'13.7 비하르주 소재 불교 사찰 연쇄 폭탄테러(승려 2명 부상)
- (최근동향) '22.8 인도 보안당국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 '민족의용단' 대상 테러를 계획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